

미야모토 무사시

미야모토 무사시(신멘 다케조, 미야모토 벤노스케, 법명 니텐 도라쿠로도 알려짐. 1584 년경~1645 년)는 유명한 검호, 철학자, 전략가이자 화가였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카사고 지역의 요네다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사시는 검술을 연마해 니텐이치류 검술을 확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 검술로 평생 60 번 이상의 결투에서 승리하며, 당시 최강 무적의 검사가 되었습니다. 이인자이자 호적수였던 이토 잇토사이(1560~1653)가 평생 한 결투는 불과 33 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사시는 전설적인 검술 솜씨를 가진 검사인 ‘검성’으로 후세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무사시는 말년에 전략과 무도에 관한 글인 『오륜서(五輪書)』와 인생철학을 담은 『독행도(獨行道)』를 저술했습니다. 두 권의 책에서 그는 하리마국(현재 효고현의 일부)에서 태어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사시의 조카(후에 양자가 됨)인 미야모토 이오리(1612~1678)가 무사시를 기리며 하리마국 출신의 전사였다는 비문을 남기면서 이 사실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당시의 다른 문서도 무사시와 이오리가 요네다에서 태어났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오리는 건물 복원 당시에 다카사고시의 요네다텐진 신사와 가코가와시의 도마리 신사에 상량판(개축 내용과 기부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패로 건물 내부에 부착된 것)을 봉납했습니다. 상량판에는 무사시를 비롯한 이오리의 조상들이 어떤 경위로 요네다에 살게 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사시가 다카사고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설을 더욱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1990 년, 지역이 낳은 위인인 무사시를 기려 현지에서 생산된 다쓰야마석으로 만든 커다란 석비가 요네다에 세워졌습니다. 기념비 근처 건물에는 그의 유품이 다수 소장되어 있습니다.